10강. 유식불교

1.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Madhyānta-vibhāga-kārikā)

◇ ‘거짓된 상상(Abhūta-parikalpa; 虛妄分別)’은 존재한다.
그 안에는 ‘짝(Dvaya)’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공(Śūnyatā; 空)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 안에도 그것은 존재한다.[MVK Ⅰ.2]

[바수반두 주석] 여기서 <거짓된 상상>이란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 사이의 구별을 의미한다. <짝>은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이다. <공>은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라는 형식을 결여하고 있는 ‘거짓된 상상’을 의미한다. 심지어 이것[=공]에서도 그것, 즉 <거짓된 상상>이 존재한다.

-보통 나가르주나의 중관불교가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고 유식불교는 의식[識; 표상]이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자는 무론(無論)으로 후자는 유론(有論)으로 이야기된다.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Madhyānta-vibhāga-kārikā)』

마이트레야(彌勒; Maitreya, 270?-350)가 지었고 바수반두가 주석을 붙인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Madhyānta-vibhāga-kārikā)』은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여기서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中)은 중도를 말하고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변(邊)은 단견과 상견과 같은 치우친 견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는 ‘중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려는 논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식불교와 중관불교 사이의 연속성을 확인하게 된다.

- ‘거짓된 상상’, 즉 허망분별은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을 허구적으로 구성해낸다.

-바수반두는 이것이 모든 집착의 기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나고, 대상은 대상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는 나로서 영원하고, 대상은 대상으로서 영원하다는 집착이 가능해진다.

-유식불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주체와 대상이란 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을 바수반두는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으로 세계를 보는 것도, 혹은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이 부재한 상태로 세계를 보는 것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가능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수반두는 공으로 보는 것도 여전히 ‘거짓된 상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2. 유식불교에서의 중도의 의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공(空)도 아니고 불공(不空)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있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도(中道)의 길이다. [MVK Ⅰ.3]

[바수반두 주석] 한편으로는 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거짓된 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空)도 아니다.> 또한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라는 짝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한 <불공(不空)도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중도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거짓된 상상> 속에는 <공>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 속에도 <거짓된 상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공하거나 철저하게 불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독법은 『반야경(Prajñā-pāramitā)』과 같은 경전들과 부합된다. 『반야경』은 "이런 모든 것들은 공하지도 않고 불공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

- "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바수반두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이 표현은 "(거짓된 상상이) 있고,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있지 않고, (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수반두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가 상정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세계를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으로 보는 마음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이 부재한 상태로 보는, 즉 공으로 보는 마음 상태이다.

-"모든 것은 공하지도 않고 불공하지도 않다"

-유식불교의 공 개념이 나가르주나의 그것과 달라지는 지점

나가르주나의 공이 단견과 상견을 벗어난 반형이상학적 시선을 상징했다면, 유식불교에서의 공은 단지 어떤 대상을 '주체와 대상'이란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유식불교가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고통에 빠져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식불교가 중관불교에 비해 실존적이고 수양론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3.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상상적인 것,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취된 것은
각각 대상들, 거짓된 상상, 그리고 짝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가르쳐진다. [MVK Ⅰ.6]

[바수반두 주석] <대상>은 <상상된 본성>이고, <거짓된 상상>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본성>이고,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달성된 본성>이다.

[스티라마티 주석] <거짓된 상상>이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라는 이원론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야기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그런 이원성 자체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같은 <거짓된 상상>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같은 <거짓된 상상>은 <상상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라는 형식, 즉 <거짓된 상상> 자체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 같은 <거짓된 상상>은 <절대적으로 성취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라는 이원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본성들은 동일한 <거짓된 상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거짓된 상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첫 번째로 알려지는 실재, 그 다음에 거부되는 실재,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실재가 드러나게 된다.

-바수반두나 스티라마티(Sthiramati; 安慧, 470?-550?)가 지적한 것처럼 유식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 양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유식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이론을 삼성(三性, tri-svabhāva)에 대한 이론, 즉 삼성설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parikalpita-svabhāva)이란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의타기성(依他起性, paratantra-svabhāva)이란 마음의 상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svabhāva)이란 마음의 상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